

“서민을 따뜻하게, 중산층을 두텁게”



법 무 부



수신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· 청화 귀하
(경유)

제목 민원(사법-2009-1109)에 대한 회신

안녕하십니까?

저희 법무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.

이 건은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상견례 도중 서먹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추첨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당시 정황이나 돈이 전달된 형식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 끝.

법 무 부 장 관



검찰주사	윤병득	검찰사무관	김천관	검사	손준성	과장	신유철
국장	최교일	차관	황희철	장관	12/31 이귀남		

협조자

시행 검찰과-12095 (2009. 12. 31.) 접수

우 427-720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(중앙동 1) / <http://www.moj.go.kr>

전화 02-2110-3250 전송 02-3480-3089 / chyun214@moj.go.kr / 비공개(6)

“녹색은 생활이다”